

고흐·모네·세잔...인상파 거장 원화 광주 온다

문화전당재단 ‘...찬란한 순간들’ 내달 23일 개막
이스라엘 박물관 소장작 거장 11명 회화 21점
‘밀밭의 양귀비’ 국내 첫 공개 등...선예매 할인

서양 근대미술의 흐름을 바꾼 인상파 거장 11명의 원화 가 광주를 찾는다.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 폴 세잔 등 미술 교과서에서 익숙하게 만났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대형 기획전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오는 9월 23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6관과 7관에서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반 고흐 그리고 세잔’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 미술가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네와 르누아르, 반 고흐, 세잔을 비롯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거장 11인의 원화 작품 21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187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인상주의의 흐름을 따라간다. 인상파 화가들은 기존 아카데미즘 미술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 눈앞의 현실보다 순간의 빛과 색, 공기의 떨림을 화폭에 담고자 했다. 화

실 밖 자연과 도시로 나아가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과 일상의 장면을 포착한 이들의 실험은 근현대 미술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주요 작품으로는 클로드 모네가 프랑스 노르망디의 지베르니에 정착하여 인생 후반부에 그린 명작 ‘수련이 있는 연못’,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빈센트 반 고흐의 ‘밀밭의 양귀비’가 있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꽃병의 장미’, 폴 세잔의 ‘강가의 시골 집’, 차일드 하섬의 ‘여름 햇살’, 카미유 피사로의 ‘빌리리 정원, 오후, 햇살’ 등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 구성은 인상주의 미술의 핵심 주제를 따라 펼쳐진다. ‘수면 풍경과 반영’ 색선에서는 자연 속에서 빛과 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찰나를 포착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에서 엿볼 수 있듯 공기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어 ‘도시 풍경, 자연, 인물이 있는 풍경’ 색선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던 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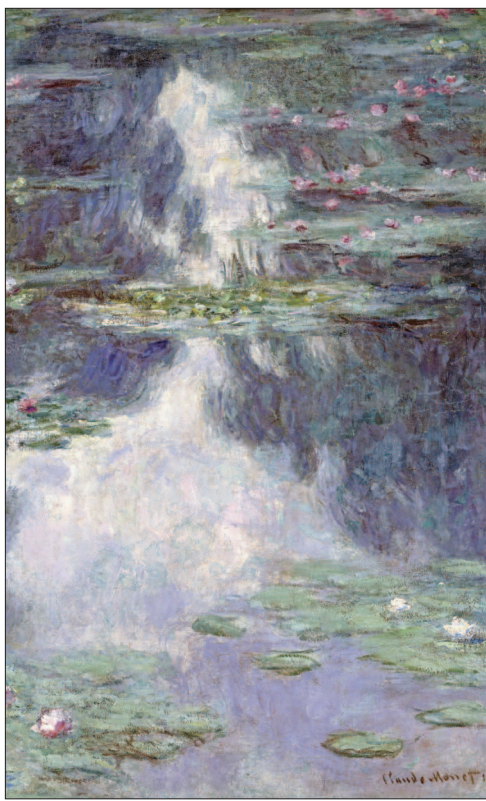


빈센트 반 고흐 작 ‘밀밭의 양귀비’

도시와 일상, 자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들이 소개된다. 녹색 밀밭과 붉은 양귀비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작가 특유의 색채 감각과 붓질이 돋보이는 반 고흐의 ‘밀밭의 양귀비’, 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평온함을 공존하는 순간을 포착한 카미유 피사로의 ‘빌리리 정원, 오후, 햇살’ 등을 접할 수 있다.

‘인물과 정물’ 색선에서는 변화하는 도시 중심층의 일상과 인간적인 순간, 정물에 담긴 빛의 실험을 살펴본다.르누아르의 ‘꽃병의 장미’와 ‘꽃장식 모자를 쓴 여인’, 고갱의 ‘정물’ 등은 인물과 사물을 향한 화가들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원화 감상과 함께 미디어 전시실, 오디오 가이드 등 관람 경험을 넓



클로드 모네 작 ‘수련이 있는 연못’

히는 요소를 더했다. 전시장 곳곳에 마련된 QR코드를 통해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화가들의 시선을 보다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다.

앞서 서울 노원아트뮤지엄에서 열린 전시는 10만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광주 전시 역시 개막 전부터 엘리버드 티켓을 오른해 관람객들이 세

계적 명작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엘리버드티켓은 성인 기준 정사가 1만3000원의 50% 할인 가격인 6500원에 판매된다.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독 사전 예매를 시작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는 네이버와 티켓링크, 놀터켓, 카카오톡 등으로 예매처를 확대해 할인 관람권을 판매한다.

김명규 사장은 “지난해 ‘뉴욕의 거장들’과 올해 상반기 ‘볼란트 포스터’전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상주의 원화전을 광주에 유치했다”며 “합리적인

관람료와 풍성한 해설, 전시 연계 콘텐츠 등을 통해 시민과 미술 애호가 모두에게 찰나의 빛이 선사하는 깊은 감동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전시 예매와 할인 혜택, 단체 관람 등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홈페이지와 각 예매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첫 무대에서 큰 세상으로...음악영재들의 비상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 합동연주회 22일 호남신학대 릴레이 독주회 재평가·지원...시상식·찾아가는 공연

지역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가 합동연주회를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젊은 음악인들이 한 달여 동안 릴레이 독주회를 펼친데 이어 이를 다시 평가해 교육과 장학 지원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법인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 배세환)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제1회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 합동연주회와 시상식을 갖는다.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은 지난 30여 년 동안 청소년오케스트라, 학술행사, 영재육성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과 문화지원 사업을 이어왔다. 올해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를 처음 추진했다.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는 단순히 오디션을 통해 입상자를 뽑는데 그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음악영재들에게 독주회를 통해 실제 무대 경험을 제공한다. 그 이후에는 교육 및 장학금을 지원



재단법인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제1회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 합동연주회와 시상식을 갖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윤지, 김동근 오디션 입상자의 릴레이 독주회 모습.

해 음악인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경연과 공연, 장학이 하나로 연결된 지역 음악인재 육성 모델인 셈이다.

앞서 국내외에서 활동해 온 음악가들의 심사를 거쳐 첫 주니어콘서트 입상자 1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영재들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독주회 형식의 무대를 선보였다. 재단은 이 개인 독주회 무대를 다시 평가해 교육지원 대상자 3명과 장학지원 대상자 7명을 선정했다. 교육지원 대상자로는 피아노 김동균, 트럼

펫 조우빈, 성악 조윤지 등 3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레슨비가 지원된다. 장학지원 대상자로는 성악 박소현·정동근·차예은, 플루트 김은수, 바이올린 오연우, 피아노 임지나, 첼로 박주환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번 합동연주회는 제1회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다.



릴레이 독주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선보인 입상자 10명이 한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다.

합동연주회에서는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등 다양한 전공의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에서는 입상자 10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입상자들이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오는 이외에 9월 8일 오후 7시30분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에서 ‘영재들과 함께하는 달빛마음 음악

회-귀에 쏙, 눈에 쏙!’을 연다. 이날 무대에는 바이올린 오연우, 플루트 김은수, 트럼펫 조우빈, 풍당클래식 중창팀이 참여해 세대·문화 화합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배세환 이사장은 “재단은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과 문화지원 사업을 이어왔다. 한 번의 무대가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주니어콘서트 역시 재능 있는 음악인을 선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더 큰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년간 광주효성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음악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풍요로운 음악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회 광주효성 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오는 2027년 2~3월 중 갖고, 7월경 콘서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창작·명작여행 등 문학교육
광주문학관, 프로그램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학관은 ‘2026 하반기 정기 프로그램’을 마련,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문학관은 독서와 창작·발표 활동을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문인과 전문 강사를 활용해 수준 높은 문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입문과정은 문학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도록 돕는 신화로 만나는 우리 역사(어린이 대상), 마음을 키우는 명작 여행(청소년 대상), 시를 노래하라-영혼의 울림, 치유의 시간(성인 대상), 기후 위기의 시대, 희망을 묻다(성인 대상) 등 4개로 구성했다.

‘신화로 만나는 우리 역사’는 우리나라 신화·설화를 함께 읽으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며, ‘마음을 키우는 명작 여행’은 세계 명작과 한국 동시를 통해 올바른 삶의 가치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를 노래하라-영혼의 울림, 치유의 시간’으로는 시 낭송에 필요한 발성교 호흡을 익히며 시에 대한 감성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고, ‘기후 위기의 시대, 희망을 묻다’에서는 기후 위기를 다룬 문학작품을 통해 생태 감수성과 환경의식을 키울 수 있다.

심화과정에서는 작가 지망생 등 참가자들이 실전 시 창작 기법과 작품 투고 전략을 익히고 작품 합평·개별 첨삭 활동을 통해 창작 역량을 향상하도록 돕는 ‘시 창작 반’을 운영한다.

하반기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바로예약 누리집(https://www.gwangju.go.kr/reserve/)이나 전화(062-613-6195)로 하면 된다.

전순희 문화유산지원과장은 “어린이부터 성인, 작가 지망생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문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97년 전 나주의 독립 염원, 춤과 소리로 무대에

광복 81주년 특별기획공연 ‘함성’ 22일 나주문예회관
한국무용·창 결합·재해석...관객 참여 ‘태극 물결’도

1929년 나주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의 함성이 한국무용과 전통 음악, 관객 참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나주문예회관에서 특별 기획공연 ‘함성’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나주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한국무용의 역동적인 춤사위와 우리 소리인 창, 극적 연출을 결합해 1929년 나주를 가득 채웠던 독립의 열망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공연 제목인 ‘함성’에는 당시 나주 사람들이 외쳤던 독립의 목소리와 오늘날의 관객이 되새기는 광복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무대 위 인물들의 몸짓과 소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유와 연대의 가치로 이어진다.

공연은 특정 영웅의 서사보다 당시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나주 시민들의 삶과 용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름 없이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했던 민초들이 지켜낸 정의와 독립에 대한 염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가 전개된다.

기존 나주역 사건 중심의 서사에서 나아가, 그 시대를 살아가며 독립을 향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의 감정과 삶의 장면을 무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분노, 연대와 희망을 공연 속에서 함께 마주하게 된다.

무대에는 한국무용과 전통음악이 중심이 놓인다. 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의 긴장과 민중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창은 인물들의 내면과 시대의 정서를 끌어올린다. 여기에 무대미술과 조명, 음악적 장치가 더해져 나주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순간을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공연 후반부에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장면이 마련된다. 객석의 관객들이 연희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1929년 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나주문예회관에서 특별 기획공연 ‘함성’을 선보인다.

시 나주를 가득 채웠던 태극 물결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 모두가 그날의 함성을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작이다. 나주의 역사적 자산을 지역 공연예술 콘텐츠로 새롭게 창·제작했다는 점에서도 의

미가 있다. 김영봉 연출가(전 국립극장 책임무대감독)와 한명선 총감독(나빌레라 단장) 등 전문 제작진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은 22일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나주문예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나주시민은 8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